

UNI-MAGAZIN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Abraham Lincoln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 위기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 연방을 보존하였고 노예제를
폐지했다.

**FEB 12, 1809 –
APR 15, 1865**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지 5일 후인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오후 10시경
포드 극장에서 남부 지지자 가톨릭 교도인 존 윌크스 부스
일당에게 암살당하였다.

GIVE ME SIX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FOUR SHARPENING THE AXE.

나에게 나무를 자를 여섯 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네 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에 쓰겠다.



OCTOBER 2024 | NO. 2



유학, 미국이었다

제가 유학을 갔던 곳은 북미 대륙의 중심부인 미국이에요. 미국은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주와 도시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저는 비교적 중앙에 위치한 시카고 근처의 대학으로 갔어요. 이곳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했어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도 가까운데, 한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곳이에요. 공항에서 기숙사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고,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답니다.

시카고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라 유학생할 하는 동안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첫날의 인상: 새로운 시작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캠퍼스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넓고 푸르른 잔디밭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어우러져 정말 예뻐요. 또, 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가게들과 카페들이 있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현지 학생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 긴장되었지만, 그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입학식을 하던 날,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웰컴 파티나 오리엔테이션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즘은 다양한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친구를 맺으면서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학업 팁도 알려드릴게요. 미국 대학은 자기주도 학습을 중시해요. 수업 시간 외에도 도서관이나 스터디 그룹을 이용해 공부하세요. 공부도하고 친구랑 친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직설적이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 받았던 순간은 교수님과의 1:1 상담이었어요.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이곳의 교수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 덕분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여름 방학 때는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미국의 기업 문화와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국인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는 문화 차이나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자신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미국 대학은 과제가 굉장히 많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특히 정신없이 바빴어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필요해요.

"미국인들은 직설적이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명문대학

미국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경영학, 공학, IT가 강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대학이나 뉴욕의 학계와 가까운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죠. 또한, 캠퍼스 생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미국 대학 캠퍼스는 일반적으로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 조건과 과정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성적(GPA)과 표준화 시험 점수(SAT/ACT)가 필요합니다. GPA는 3.0 이상, SAT는 최소 1200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최근에는 에세이와 추천서도 중요한 입학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USC와 같은 명문 대학은 GPA 3.79-4.0이 필요합니다. 편입생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성적표와 함께 코어 과목의 이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TOEFL / IELTS / Duolingo 등 어학 점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학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TOEFL 기준 100점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미국 대학 입학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릴게요. 첫째, 표준화 시험 성적은 꼭 필요하나요? 요즘은 일부 대학에서는 SAT나 ACT 점수를 선택 사항으로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명문대는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둘째, 대학 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학업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셋째, 유학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한 학기당 평균 2만-3만 불이 소요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학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진과 최신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와 학생들이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매우 좋죠. 그러나 단점도 존재해요. 높은 학비와 생활비, 치열한 경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대학교는 생활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잘 고려해야 해요.

"미국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경영학, 공학, IT가 강세입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가 경험하고 느낀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해 봤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려다 보니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국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고민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명문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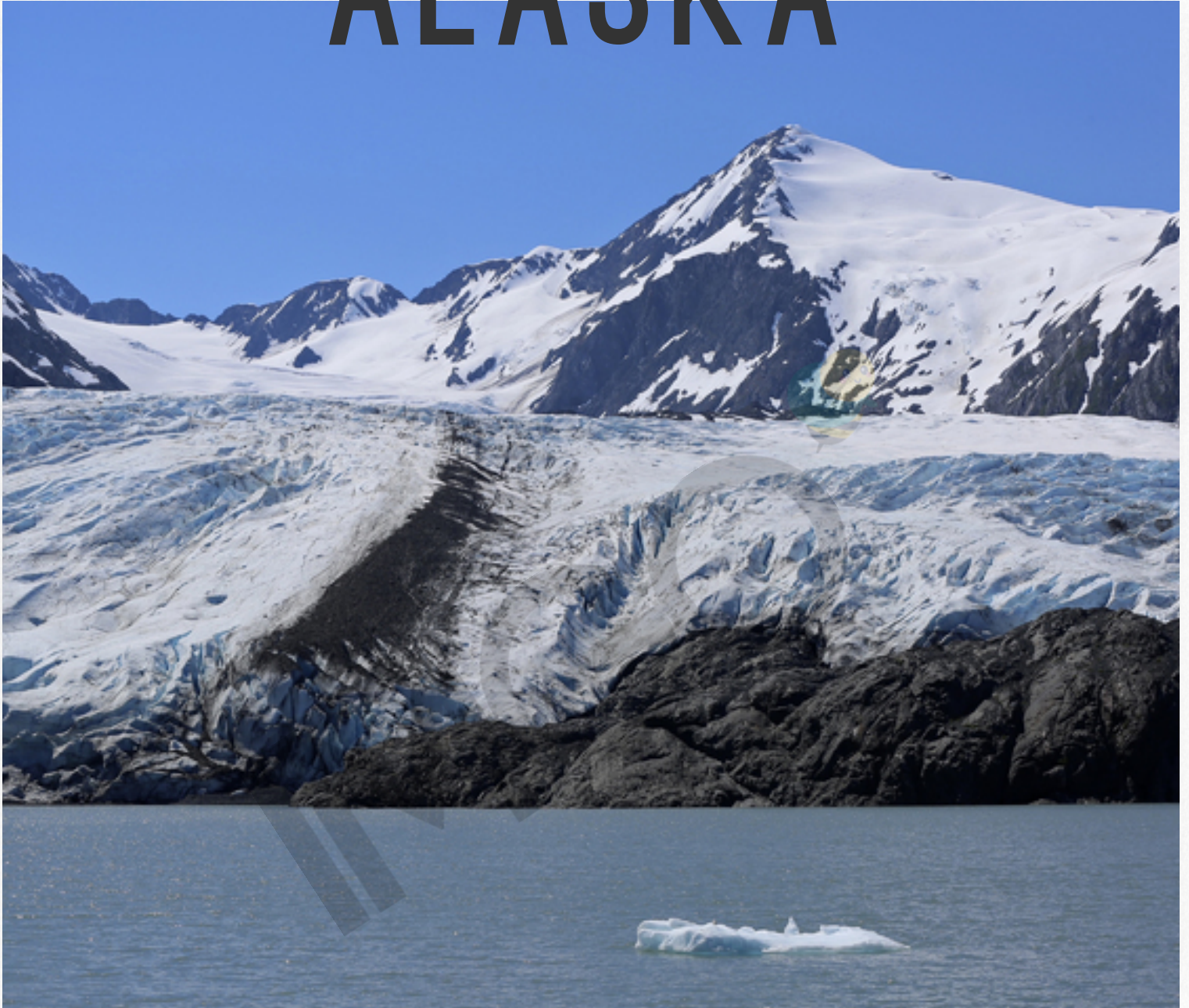
미국은 유학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국가이고, 너무나도 많은 명문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여러분들께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의 소개 보다는 새롭게 업데이트 된 미국 내 대학 순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4/25 Best National Universities Ranking)

1. Princeton University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Harvard University
4. Stanford University
5. Yale University
6.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7. Duke University
8. Johns Hopkins University
9. Northwestern University
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11. Cornell University
12. University of Chicago



이거 진짜야?

ALASKA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는 원래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약 720만 달러에 구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얼음덩어리'로 여겨져 무가치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미국은 알래스카를 소유한 지 단 50년 만에 이 땅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알래스카를 팔았을까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전략적 이유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는 크림 전쟁(1853-1856)에서 패배한 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알래스카와 같은 멀리 떨어진 영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알래스카는 당시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함으로써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며, 알래스카 매각을 통해 미국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영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당시 알래스카의 자원에 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알래스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유지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먹지?!

유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 레시피

GRILLED CHEESE SANDWICH



재료:

- 식빵 2장
- 슬라이스 치즈 1~2장 (체다, 아메리칸 치즈 등)
- 버터 (빵에 발라 구울 때 사용)

만드는 방법:

- 식빵 양쪽 면에 버터를 얇게 발라줍니다.
- 프라이팬을 중간 불로 예열한 후, 버터를 바른 면을 아래로 놓고 치즈를 빵 사이에 넣습니다.
- 빵이 황금색이 될 때까지 각 면을 2~3분씩 구워줍니다.
- 치즈가 녹으면 완성입니다!